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 오늘 견본주택 오픈 분양 돌입

전주와 인프라 공유 가능

완주 첫 브랜드 아파트인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18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과 완주 산업단지 직주근접 입지를 갖춰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지방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피한 ‘박차’ 단지여서 아껴 둔 청약 통장이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 B-2블록(삼계읍 수계리 705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5층 6개동, 전용면적 72.84㎡ 총 605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은 ▲72㎡A 124가구 ▲84㎡A 340가구 ▲84㎡B 141가구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선보인다.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가 들어서는 삼봉지구는 삼계읍과 봉동읍 일원 총 91만4,000㎡에 조성되는 지역 첫 공공주택지구다. 완주군 핵심 추진사업으로 아파트(5,826가구), 단독주택(233가구) 등이 들어서는 미니신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삼봉지구 내 첫 민간분양 아파트로 입주 시점에 완성된 택지지구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인프라를 공유 가능한 입지도 관심거리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선 전주 에코시티까지 차량으로 7분 거리며, 롯데마트 송천점, 메가박스 송천점, 전주 월드컵 경기장, KTX 전주역도 들리기 편리하다. 또한 삼봉지구에 완주소방서, 완주보건소가 들어섰으며 파출소, 하나로마트,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도 조성될

계획이어서 체계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이다. 완주산업단지까지 차로 3분이면 갈 수 있는 ‘직주근접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북측에는 완주 전주 일대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주전주과학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 등이 클러스터로 밀집해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 LS엔트론, KCC, 현대글로비스 등의 대기업이 들어서 있으며, 산업단지를 확정하는 완주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진행중인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도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다.

산업단지 직주근접 입지 갖춰 수요자들 ‘관심집중’
전주 에코시티 차량 3분 · 완주 산단 차량 7분 거리
인근에 축구장 10개 크기 편백나무 숲 들어서 ‘쾌적’
28일 1순위 청약 진행, 분양권 전매제한 1년 막차 단지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 투시도

지역을 5개로 구분해 집중적으로 관리 및 차단하는 친환경 청정 시스템이다.

청약 일정으로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완주군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미치지 않는 비조정지역이어서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지역 최초 브랜드 아파트로 푸르지오가 공급된다는 소식에 완주는 물론 전주, 익산 등 주

변 도시에서도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고객 대부분은 합리적 분양가에 내집마련에 나선 3040세대 실수요자”며 “완주 첫 브랜드 아파트에 걸맞은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단지구성과 평면에 각별히 신경을 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견본주택은 완주군 삼계읍 수계리 322-1(완주소방서 옆)에 위치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견본주택 사전 방문 관람 예약제를 실시한다.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예약자 본인을 포함해 총 2명이 관람 가능하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역 농어촌 맞춤형 사업모델 발굴 위해

농어촌공 전복본부 KRC 발전포럼 열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17일 지역본부에서 농어촌지역소멸 위험성 확대와 농촌예산의 지방이양에 대응하고 지역자원의 통합과 연계를 위한 기간 한 협업모델을 발굴하도록 ‘KRC 전북 농어촌발전포럼’을 개최했다.

KRC 전북 농어촌발전 포럼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북도청, 농촌진흥청, 전북연구원, 한국농촌건축학회,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임실군, 순창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북대학교 순재권 교수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이강환 본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북도 농촌정책과 황영연 팀장은 “전북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각 기관들과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2021년도 예산확보 성과가 있었으며, 농어촌발전포럼에 전북도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농촌진흥청 김상범 연구관은 “전북도가 미래 정책과 연계성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같이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북연구원 장성화 박사는 “현재 시점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미래 대응을 위해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 반영도 필요하다”며 “다음 논의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전략계획 가이드라인 중 지역의 의견 수렴과 관련해 설문조사 항목 설계 적용과 전문가 활용방안 등을 전북도의 특성에 맞게 변경해 실효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포럼에 참석한 2021년 시범도입 지자체인 임실군과 순창군 관계자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니 만큼 많은 격정과 우려가 있으나 열심히 준비해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개선 사업에 힘 보태

서민금융지원에 앞장서 온 전북은행이 서민 및 취약계층의 신용개선 및 부채관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선다.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이 17일부터 시행하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시범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 서민금융진흥원 이계문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북은행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1억원을 기부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이 기부금을 활용해 컨설팅 신청자의 신용도 관리를 위한 컨설팅 제공과 금융기관 퇴직자 등을 활용한 신용부채 관리 컨설턴트 양성을 통해 고령층의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전북은행은 징검다리론을 개편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은행 햇살론 대출이용자 중 1년 이상 성실상환 고객을 대상으로 햇살론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와 추가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또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이용 고객들에게는 추가 금리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서민금융 이용 고객들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 경감 및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국산 농산물 원료 이용한 식품 개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고창군, 매일유업(주)과 국산 농산물 원료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6일 삼하농원(고창군)에서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산 농산물의 생산부터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연구기관, 지자체, 산업체가 협력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과 식량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관련기사 8면>

중기 67.6% “추석 자금사정 곤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 등이 주원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3분의2는 추석 앞두고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1,0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67.6%가 자금사정 곤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추석자금 사정 곤란 업체 비중 55.0% 보다 12.6%p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와 함께 임직원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애로가 가중되면서 추석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금사정 곤란원인(복수응답)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한 ‘판매부

진’(86.9%)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판매대금 회수지연’(30.1%), ‘인건비 상승’(2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가 추석자금사정 곤란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업의 답변이 94.1%로 나타나,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추석에 중소기업은 평균 2억 4,63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필요자금 중 확보하지 못해 부족한 금액은 6,890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28.0%로 나타났다.

추석자금 확보계획과 관련해 ‘대책 없음’(42.5%), ‘결제연기’(38.7%), ‘납품대금 조기회수’(35.3%) 등으로 응답했으며, ‘금융기관 차입’(31.0%)으로 답변한 비율도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 이마트 에브리데이 238점포에서 전북농산물 특별판매전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과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전북 농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해 전국 이마트에브리데이(238점포)에서 17일부터 23일까지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함께 기획한 코로나19 극복 우수농산물 특별판매전을 연다.

전북 농산물 특별판매전은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철농산물 4개 품목(사과, 배, 캠벨포도, 고구마)을 판매하며, 행사기간동안 전담행사와 타임세일 및 매장 안내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홍보한다. /김윤상 기자

‘국민이 행복한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 창립 33주년 기념행사 온라인 진행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7일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창립 33주년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직원 7천여 명은 사내 인트라넷과 유튜브를 통해 기념영상 시청하며 창립 33주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기념영상은 창립 33주년을 맞이한 임직원의 소감과 비전을 담아 제작됐다. 특히, 공단이 위탁받아 운영중인 ‘충청·중앙2 코로나 19 생활지원센터’에 파견된 직원 13명도 참여해 “국가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게 되어 자긍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공단은 1987년 창립 이래 꾸준한 내실화를 통해 가입자 2천 200만 명, 연금수급자 5백만 명과 함께 명실상부한 노후소득보장제도

로 입지를 굳혔고 기금적립금 752조 원급을 보유한 세계 3대 연금으로 성장했다”며, “지난 33년 동안의 발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간 함께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지난 취임사에서 밝혔던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이란 국민들의 미래 삶에 희망이 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금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세 가지 방침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 방침으로 ▲모두 함께 행복한 국민 ▲돈돈하고 신뢰받는 연금 ▲스스로 혁신하는 공단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튼튼한 제도와 기금운용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김용진 이사장

중기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참여 희망 수요기관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중소·벤처기업의 비대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관 모집 신청을 28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 내 수요기관을 선정해 화상 회의 장비 구축, 국산 SW 솔루션 구입, 스마트워크 부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해 원격근무 확산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수요기관 모집 신청대상은 중소·벤처기업 지원기관과 업종별 협회·단체로 기존에 사용중인 회의실에 시설을 구축해 중소·벤처기업에게 상시 개방이 가능한 기관으로 한다.

지원규모는 총 1,567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유형에 따라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일반형은 전국에 1,562개소(전북지역 75개소)를 선정할 예정으로 영상장비, 모니터, 스피커, 국산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소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수요기관 모집신청은 e-나라도움(www.gosims.go.kr)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중기청 홈페이지 사업 공고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안남우 청장은 “중 사업은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해가는 과정에서 원격근무 환경이 열악한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김윤상 기자